

우리가 함께 걷는 시간 작가:이규영

1309 오채현

긴 글을 읽는 것이라고는 책을 읽고 사는 친구가 무엇을 아주 집중하여 읽고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것이 이 책과 나의 첫 만남이다. 시험기간 책을 보던 눈빛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책을 읽는 친구의 모습이 신기해 이 책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도 한번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은 중간 중간에 그림이 삽입되어 있다. 이 그림들이 익숙하게 생겼는데 내가 자주 이용하던 SNS에서 클레와 그림만으로 50만 SNS 독자를 만든 뽀빠 작가님이 쓰셨던 책이었다. 내가 SNS에서 읽었던 클레가 모든 이 책에서 나오기 같다. 책의 내용을 굉장히 소개하자면 서로를 많이 사랑하는 두 남녀가 연애하는 것을 하며 서로에게 항상 설레어 하고 무엇이든 함께하며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떠올려 주고 곁에 있는 상대방을 통해 소중함과 행복감을 느끼고 이러한 행복한 시간 속에서 자신이 발전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나오는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따뜻하고 예뻐 읽을때마다 설레었다. 그리고 몇가지의 대사도 내가 실제 연애를 하며 생각했던 말과 비슷하며 예전 내가 행복했던 모습이 생각났다. 대사가 설레어 인상깊었던 대사들도 많았지만 나의 생각을 다시 다질하게 되면 문장이 있었는데 '너도 나에게 보여 준 희미를 권리만 줄 생각하지 않을 거고 나에게 줄 관심과 배려를 당연해하고 당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문장이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따뜻한 마음들이 지속되다보니 그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져 행복으로 나아가다 모든 사라졌을 때 이제서야 소중했다는 것을 느끼고 후회했던 내 모습을 본 뒤 익숙함에 소중함을 놓치지 말자 생각했던 나의 다짐이 다시 각성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다. 오랜만에 이런 글을 읽으니 내 연애서포가 다시 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사랑도 느껴 집중해서 재밌게 읽었던 것 같다. 친구가 그렇게 열중이 할만한 이유도 알게된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사랑이 직접 경험 하면서 발전 하는 것이 배움을 통해 발전하는 것보다 더 강한 발전을 만드는 것 같다는게 왜인지 모르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책 덕분에 몇 생각도 나 흐트러진 시간도 주는 것 같아 좋았다.